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전북청년 두배
적극 참여자 금융교육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지난 16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건전한 자산형성을 유도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교육 및 컨설팅이다. 이날 교육은 청년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부동산 어플 활용하기 등 2000 세대가 공감해 하는 부동산 필수 정보와 △생환비와 제테크의 적정 비용 △재테크비 관리 등 재무관리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사업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청년이 본인 납입금 10만원씩 2년간 적립시 동일 금액인 10만원을 지원비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폭염 · 집중호우
대비 방문건강관리 강화

고창군이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강 취약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나기를 할 수 있도록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폭염 · 장마철 집중호우가 지속되자 오는 9월까지 독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고창군보건소는 폭염에 취약한 건강취약민을 사전 파악해 건강위험군으로 선정했다. 12개 보건지소, 24개 보건진료소 보건업무 42명을 구성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인부물확인, 일일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한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운영질환 예방이 가능하니 반드시 지켜주시길"을 당부하며 "방문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행정효율 향상, 주민 만족도 'UP'

고창읍사무소, 행정기능 · 가족돌봄 등 복합기능 탑재 주민행복센터 8월 준공

고창군이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준공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가족돌봄과 여가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창군청 제2청사 건립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완성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조성어가 조만간 마무리된다.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도시디자인과와 인재양성과를 포함하여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면 고창읍사무소와 가족센터 등이 입주, 본격적인 대민 행정서비스 개시에 들어간다. 고창읍 주민행복센터는 2019년 지역밀착형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85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은 4686㎡ 규모로 건축됐다. 지상 1층에는 민원실 등 고창읍사무소가 입주하고, 2층에는 사무공간을 포함해 대회의실을 비롯하여 노래교실, 요가 등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또한 3층에는 가족센터가 입주해 공동육아와 가족상담, 교육 등 가족 돌봄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면 단위의 고창읍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읍내권에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센터와 문화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복합기능 수행으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창군은 분산된 행정조직을

모아 주민들에게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중인 고창군청 2청사 건립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고창군청 제2청사는 총사업비 88억원으로 지상 5층(지하1층), 연면적 2488㎡의 규모로 기존의 고창군의회가 입주할 계획이다. 1층은 민원인 라운지, 2층은 본회의장, 3층은 위원회실, 4층은 사무공간, 의원실 등, 5층은 의정실 · 부의장실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0년 기본계획 수립 후 각종 행정 절차와 설계가 지난해 완료되어 2023년 12월 공사가 발주되어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10월 마무리되어 기존 의회동이 옮겨지고, 빨발이 흩어져 있던 부서가 옮겨와 재배치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및 위급시 SOS 구조버튼 누르기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어업인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권익현 부안군수,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 SOS 구조버튼 누르기 챌린지

부안군은 권익현 부안군수가 어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및 위급시 SOS 구조버튼 누르기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과 위급상황 발생시 구조신호 발신에 대한 인식 전환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5월 1일 해양경찰청과 수협중앙회가 시작한 전국 릴레이 캠페인으로 해양수산분야 기관 · 단체들의 적극적인 주도로 챌린지를 실시해 어업인들의 자연스러운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참여자가 캠페인 동참 요청 피켓을 들고 안전조끼 착용 등을 당부하며 다음 참여자 2명을 지

목하는 방식으로 첫 참여자인 해양경찰청장을 시작으로 해양수산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 경남도지사, 가수 이정 등이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했다. 권익현 군수는 서영교 부안해양경찰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다. 권익현 군수는 다음 참여자로 송광북 부안수산업협동조합장과 김선주 가력항 어민협회장을 지목해 챌린지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권익현 군수는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어업인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성진 기자

전국적 백일해 유행... 확산 방지 대책마련 착수

정읍시 보건소, 여름방학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강화

정읍시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시는 우선 여름방학을 대비해 초·중고교 및 학원 등 교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홍보를 요청하고 백일해 백신 접종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 감염병인 백일해는, 100일간 기침을 할 정도로 증상이 오래가기 때문에 백일해라는 이름이 붙었다. 특히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발생한 비말

에 의해 감염 · 전파되며 전염성이 강하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사망자가 보고 됐으며, 올해 백일해 환자가 전국에서 7873명(7월 14일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27배 상승. 그중 19세 미만 소아 · 청소년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읍지역에서도 감염자가 1명(60대 여성 · 7월 16일 기준) 발생했고, 도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어 기본 예방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특히 백일해 감염 시 증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1세 미만 영아의 적기 예방접종(생후 2~6개월)과 추가접

종(15~18개월, 4~6세, 11~12세)이 적극 권고된다. 만성 폐 질환자 등 고위험군 영아 돌봄 종사자, 65세 이상 성인 임신부 또한 백일해 백신(Tdap) 접종 권고 대상자이다. 특히, 국가접종에서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1-12세(6차 접종 대상자)의 적기 접종이 중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백일해는 비말에 의한 감염과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한 간접 전파도 가능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해 개인위생의 철저한 관리, 기침 예절 준수,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며 “일주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과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 CU와 고구마말랭이 '득템' 출시

고창군이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대표 서재필), 국내 최대 편의점 CU와 함께 달콤한 고구마 말랭이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CU의 PB브랜드인 '헤이루' 로 이달부터 전국 1만8,000여 매장에 공급되고 있다. 고구마 말랭이 '득템'은 고창지역에서 생산된 고구마를 오븐에 굽고 가공하여 쫄쫄한 식감, 군고구마 향, 높은 당도를 자랑하며 큰 인기가 예상된다. 고구마 말랭이 '득템'은 소비기한이



짧아 장기보관이 어려웠던 기존 고구마 말랭이 제품과는 달리 레토르트

살균, 질소충전 등 공정을 진행했다. 이에 고구마의 색깔과 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크게 향상됐다. 성현섭 고창군 농촌협력과장은 “CU와 전북특별자치도간 상생협력 일환으로 고창 농식품이 유통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창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상교작은도서관, 개관 10년 맞이 새단장

정읍시 상교작은도서관이 개관 10년을 맞아 정읍시 체육특레이닝 센터 내 2층으로 이전해 이용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상교작은도서관은 310㎡(94평)규모로 50석의 열람석과 6000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서관 견학, 동화구연, 아트세상 등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치매예방교실 ? 100세 인생, 즐거운 노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밖에도 상교동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영화상영과 생활요가, 한글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지역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